**조선족 문학과 문화 정체성의 변화**

**제롬 드 위트**

**튀빙겐대학교 (독일)**

1949년 새중국이 창건되면서 새로운 국가, 정치이념, 경제환경, 문화정책이 형성됨에 따라, 조선족들은 새로운 생활환경을 맞이하게 되였다. 조선족들은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 그들만의 문학을 만들어냈으며,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들의 삶과 고통, 애환과 한이 비로소 조선족 문학에 많이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민족성이 조선족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견고한 토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안정된 적이 없는,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변화의 과정에서 항상 다른 형태와 결합으로 형성되고 개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족의 정체성은 계속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이것은 순환적인 문화 간의 영역과 교차 영역을 가진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하이브리드의 다공성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이 강의에서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조선족 문학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선족들이 겪었던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문학을 통해 조선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려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여러 조선족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소개하면서 조선족들의 시대적 관심, 고민뿐만 아니라 각 세대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서술되었는지도 함께 볼 것이다.

조선족 문학은 정체성을 재현하기 위해 배타적이거나 정적이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 다원적, 불확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된 것이고, 그 중의 '고향', '경계', '사람들'과 같은 의미를 재해석해 본다.

**Korean-Chinese Literature and Changes in Cultural Identity**

**Jerôme de Wit**

**University of Tübingen (Germany)**

Although ethnicity may appear to be the solid bedrock upon which the Korean-Chinese have shaped a sense of themselves, this has never been stable, but is always being formed and reformed in different patterns and combinations in a process of constant interaction and change shaped by historical and social circumstance. As a consequence, Korean-Chinese identity is in a constant state of ﬂux. This creates a hybrid and porous formation of identity, as a culture in a constant process of transformation with transgressive intercultural zones and intersecting regions.

In this lecture we will look at Korean-Chinese literature from 1945 to now and see how authors from different generations framed and portray the Korean-Chinese identity. Korean-Chinese literature interrogates the meaning of such words as ‘homeland’, ‘border’, and ‘people’, in order to reimagine identity, not as exclusive, static, and pure, but as intercultural, plural, contingent, and constantly negotiated through contact with others.